총인 비리 연루 해임자 市 위탁사업 맡아 추진

광주디자인센터 공개 채용

(재)광주디자인센터가 총인처리시설 입찰 비리(이하 총인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광주시 출연기관 직원을 광주시의 위탁 연구 사업 기획자로 공개 채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광주디자인센터에 따르면 광주디자인센터는 지난 8월 6일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발전연구원 전 직원 A씨를 '광주디자인센터 산업화 프로젝트 기획·중장기수립 및 계획 담당 기획자'를 공개 모집하는 방식으로 위촉했다.

A씨는 올해 말까지 디자인센터 산업화프로젝트 태스크포스 추진단 산하에서 한시적으로 근무하며 광주시가 위탁하는 4000만원 상당의 연구 사업을 맡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광주발전연구원에서 근무하다 '총인 비리'에 연루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해임된 바 있다. 비리에 연루, 해임된 직원이 광주시 출연 기관에 다시 채용돼 광주시 위탁 사업 업무를 맡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디자인센터는 당시 채용 과정에서 '정책 및 사업기획 5년 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등'이라는 규정에 적합하다는 점을 들어 총인 비리 전력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정규직의 경우 '채용 시 공무원 및 정부·지방투자기관에서 해임 등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자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선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이 있지만 한시 직원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디자인센터는 밝혔다.

재단법인인 광주비엔날레는 한시 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정규직과 같은 결격 사유를 감안해 채용한다는 내부 규정을 정하고 있다.

광주디자인센터는 또 센터 자문위원 4명을 면접 위원으로 위촉해 면접을 실시했다. A씨 역시 디자인센터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디자인센터 관계자는 "기획자 공모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규정에 따라 A씨를 임용했고 면접위원들이 잘 판단한 만큼 절차의 하자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해경, 中어선 가거도 해상 26㎞ 추격전

흉기 휘두르며 극렬저항 중국 선원들
2시간 혈투 끝에 검거 … 해경 4명 부상

7일 새벽 5시50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68㎞ 해상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수십척 떼를 지어 조업하던 중국 타망 어선들이 해경의 레이더에 포착됐다.

해경은 1506호 제민 6호(1500t급) 하나 만으로는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히 인근을 순찰하던 제민 9호(1500t)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 사이 중국 어선들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황금 해역'인 우리 바다에서 치어 등을 싹쓸이하고 있었다.

40여분 뒤. 제민 9호가 도착하자 해경은 즉시 정선 명령을 내렸다. 중국 어선들은 그러나 명령에 불응하고 뿔뿔이 흩어지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중국 어선은 멈추지 않고 계속 서쪽으로 내달렸다.

중국 어선과 대원 8명이 탄 소형 고속 단정과의 추격전이 시작됐다. 26㎞를 추격하면서 소형 고속단정을 타고 우리측 단속 해경은 승선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배 측면에는 승선을 막기 위한 쇠창살이 줄지어 박혀 있었고 중국 선원들은 돌·유리병·칼 등을 휘두르며 결사적으로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던진 흉기에 단속 해경 4명이 찔리거나 다쳤다. 우리 해경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2시간 여만의 혈투 끝에 어선에 올라 배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목포해경이 부상을 입은 것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지난 2일에도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하던 단속 경찰이 중국 선원의 흉기와 화염병에 부상을 입는 등 중국 선원들의 극렬 저항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16일부터 쌍끌이 어선 등 중국 타망 어선에 대한 조업이 개시되면 불법 조업 어선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중국 어선들의 저항도 극렬해지고 있어 해경이 바짝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효과적으로 단속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쇄형 사다리 등 신형 단속 장비 보급이 더디게 진행되는데다, 지난 2011년 단속 해경이 숨진 뒤 중국의 '재발 방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따뜻한 밥상 7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근린공원에서 삼성전자와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이 어르신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따뜻한 밥상'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장성군 아파트서 화재

7일 오전 8시10분께 장성군 장성읍 Y아파트 6층 양모(52)씨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3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양씨의 아들(19)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출근시간 발생한 불로 주민 수십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전기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초·중·고교 운동부 경비 광주가 가장 많이 든다

34개 학교 45억4400만원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 운동부 경비의 학부모 부담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구기종목 운동부가 있는 전국 1015개 학교로부터 운동부 학교회계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광주 35개 학교의 학부모 부담액·학교지원액은 45억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의 경우 서울(160억9000만원)을 제외한 부산(20억9000만원), 대구(20억4000만원), 인천(12억8000만원), 대전(5억40000만원), 울산(4억8000만원)보다 많아 광역시 중 부담이 가장 컸다.

이를 학교지원액을 뺀 초·중·고별 학부모 부담액을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38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2억3000만원, 고등학교 3억5000만원 등으로 대부분 학부모 부담액이 차지했다.

전남지역 학부모 부담액·학교 지원액은 11억7800만원으로 도 단위 지역 중 강원(271억6300만원), 경기(111억3200만원), 충남(22억5500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이중 전남지역 학부모 부담액은 초등학교 1억3000만원, 중학교 4억7000만원, 고등학교 2억4000만원 등이다.

광역시도별 감독 코치 평균 임금은 광주·전남지역이 높은 편이다.

광주의 경우 35개 학교의 감독급 평균월급은 229만원, 코치급 평균월급은 193만원, 전남은 감독급 270만원, 코치급은 183만원으로 전국 평균 217만원, 171만원보다 많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교육감 선거 '후보 양보 요구' 진상조사

광주시 선관위

광주시 선관위는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일부 간부와 교사가 선거 출마선언을 한 후보에게 양보를 요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광주시의회 윤봉근·정희곤 의원이 최근 기자 간담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장휘국 교육감과 본청 일부 간부가 찾아와 장 교육감으로의 후보 단일화를 요구했다"고 언급한 내용과 관련, 진상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는 윤 의원과 정 의원을 상대로 관련 사실이 맞는지를 조사하고 해당 교육청 간부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선관위 직원들을 만나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선관위는 교육청 일부 간부와 교사가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를 찾아가 양보를 종용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현 장휘국 교육감이 자신에게 후보직 양보를 요구했고, 윤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청 간부 등이 자신을 찾아와 후보직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남구 신청사 내 대형 의류매장 입점 반발 확산

광주시 남구 신청사 내 이랜드 그룹의 대형 의류매장 입점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눈 앞 수익에만 급급, 지역 상권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점포 입점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구의회와 지역 상인들, 시민사회단체 등이 집단 행동에 돌입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전통시장살리기 광주네트워크는 8일 남구 신청사에 대규모 의류 매장 입점을 가능하게 하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시장살리기 광주네트워크는 경실련, 광주시민센터, 광주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남구의 지역 영세 중소 상인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정 행태를 비판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 봉선시장 및 무등시장 상인들도 지난 7일 자체 모임을 갖고 남구의 조례 개정을 반대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배진하 남구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남구는 지역 상권을 고려하지 않은 청사 내 대기업 점포 입점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조례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빈집서 10여 차례 여자 속옷 훔쳐

쌍나팔

○…빈집에 들어가 여자 속옷만을 훔쳐온 40대 '변태' 남성이 경찰서행.

○…7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이모(44)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조모(여·23)씨의 집 안 빨래 건조대에 걸린 팬티 등 속옷 7점을 훔치는 등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80만원 상당의 여자 속옷 50점을 훔쳤다는 것.

○…경찰은 박씨가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여자 속옷을 훔치다 두 차례 붙잡힌 전력 등을 감안해 처벌 수위를 검토중. /최승렬기자 srchoi@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한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글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o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au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상담전화 1899-3975 H.P 010-3598-7080

현 장 직 사원모집

전문인력관리회사인 당사에서는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근무가능한 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급여 : 1,800,000원
- 상여금 300%분할지급 (3개월 후부터)
- **6개월 이상 근무시 정규직 가능, 상여금 400%**
- 근무시간 08:30~17:30 + 3시간 연장, 토요일 특근
- 여자사원은 35세 이하(경력자 40세미만 까지)
- 남자사원은 35세 미만으로 군필자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주민등록등본 각1부
- 근 무 지 : 하남 7번도로, (주)금호전기

☞ 초보자가능, 즉시근무, 장기근무가능, 작업환경좋음.

주식회사 엠 지

TEL. 062-681-5588 HP. 010-2580-3744
FAX. 062-681-5586

※버스운행 : 두암동 → 문흥동 → 오치 → 일곡 → 양산동 → 첨단지구 → 신창지구 → 신가 → 운남지구 → 월곡동